藏書閣 所藏 御製類 刊本의 書誌的 分析

A Bibliographical Study on the Printed Editions of Ojeryu in the Changseogak

옥영정(Ok, Young-Jung)*

◁ 목 차 ▷

1. 緖 言
2. 藏書閣 御製類의 보존과 범위
3. 御製類 書籍의 간행과 왕실출판
4. 藏書閣 御製類 刊本의 서지적 특징
5. 結 言
<참고문헌>

<초 록>

藏書閣의 장서는 규장각과 더불어 한국 왕실자료의 寶庫로 알려져 왔다. 수많은 장서각의 자료 중에는 임금이 직접 찬술하거나 왕명을 받아 대신 편찬한 御製類 서책이 많으며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유산으로서 그 연구가치가 매우 높다.

이 연구는 어제류 서적의 전체적 정리를 위한 기본적 과정으로 장서각의 소장자료를 우선대상으로 삼아 고찰하여 보았다. 우선 藏書閣 御製類 서적의 보존과정과 범위를 알아보는 의미에서 장서각의 서적 보존경위, 그 중에서도 특히 어제류 서적의 보존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왕실도서를 주로 포함하고 있는 書目 중에 어제류 서적이 저록된 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어제류 서적으로 인쇄하여 간행한 자료의 현황을 살피고 그 의의와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요어 : 藏書閣, 御製類

* 嶺南大學校 中央圖書館 古書室 사서 (gabinja@yumail.ac.kr)
접수일: 2004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2월 1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S>

The collection of Changseogak(藏書閣) with that of Kyujanggak(奎章閣) were known as the treasures of royal documents and have value of research as korean cultural heritage. Ojeryu(御製類) written by king for himself or compiled by the royal orders holds many portions of the collection.

This study is to survey Ojeryu kept in Changseogak as priority items for arrange Ojeryu in general. First, to search process and extent of preservation of Ojeryu kept in the Changseogak investigated details of preservation of collection of Changseogak especially process of preservation of Ojeryu and records about Ojeryu on catalogue of books include many records of Royal books. Also researched form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printed editions of Ojeryu kept in the Changseogak to survey present states of them.

Keywords : Changseogak, Ojeryu(御製類)

KCI

1. 緖 言

藏書閣은 奎章閣과 더불어 한국 왕실자료의 寶庫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왕실도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왕실서책의 간행이나 보존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장서각의 소장서책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儀軌類, 궁중의 한글 諺解資料 등은 다양한 주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해당 주제분야의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왕실자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御製類 서책에 대한 연구는 의궤나 언해자료에 비하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왕의 정치사상은 물론 왕실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에 대한 이용이나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어제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점과 실물자료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고 그 양이 방대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필사본의 형태로 대부분이 남아있는 어제류 중에서 간행된 자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방대한 분량 중에 일부분이나마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이는 조선시대 왕실출판이라는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배경적 설명으로 藏書閣 御製類 서적의 보존과 그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장서각의 서적 보존경위 그 중에서도 특히 御製의 보존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장서각에 남아있는 어제류 서책의 장서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어제류 서책의 범위는 현재까지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歷代 書目에 나타난 어제류를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장서각에 현존하는 어제류 간본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해보고 간행의 시기, 판본, 형태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御製는 왕의 저술이라는 특성상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실물로 남아 있는 것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이다. 어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장서각 소장자료에 대한 전체적 해설에 御製를 일부

소개하거나[1] 장서각 자료의 구성과 장서의 변화에 대한 연구[2]에서 그 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국왕문집으로서 「列聖御製」의 편찬과정을 다룬 연구가 있고[3] 영조대 어제 서적의 편찬 의의를 정치 사상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가[4] 있다. 개별 어제류 서적에 대한 연구로는 정조의 「弘齋全書」[5]나 「日得錄」[6]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보다 정확한 연구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제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아 장서각 소장목록에 분류된 방식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 藏書閣 御製類 書籍의 보존과 범위

2.1 장서각 어제류 서적의 보존

왕실의 서적 관리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도 밝혔듯이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여러 곳에 소장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왕실 서적의 소장처는 확인되는 곳만 22개소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御製書 刊本의 서지적 특성을 고찰하기에 앞서 장서각의 서적 보존경위와 그 중에서도 특히 어

1) 千惠鳳, "藏書閣의 珍籍," 「國學資料」 創刊號(1972), 3
尹炳泰, "藏書閣 資料의 特性,"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城南: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2)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城南: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3) 李鍾默, "藏書閣 所藏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編纂過程," 「藏書閣」 創刊號(1999) 21-52.
4) 李妊玟, "英祖代 御製書 편찬의 의의,"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대학원, 2003).
5) 金文植, "正祖 御製集 弘齋全書의 書誌的 特徵," 「藏書閣」 제3집(2000)
辛承云, "弘齋全書와 群書標記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연구," 「書誌學硏究」 제22집(2001.12) 371-404.
6) 鄭玉子,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7) 李鍾默,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26호, 韓國書誌學會(2002, 12)

제류 서적의 보존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서각의 서적보존과 그 경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8]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알려져 있다.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정리해보면 고려시대 왕실문고나 조선시대에 학술기구을 겸한 장서처로서 왕실의 편찬도서, 간행도서가 보존되어 왔고 왕실자료의 보관하였던 奉謨堂의 자료가 대부분 소장된 장서각의 서적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왕실의 서적관리가 이루어져 왔음이 밝혀져 있고,[9] 고려시대에는 여러 문헌에서 왕실문고의 설치와 장서의 보존을 기록하고 있다. 왕실문고는 전 시대를 통한 史庫를 비롯하여 성종 때의 秘書城, 숙종 때의 文德殿, 重光殿, 長齡殿, 延英殿, 예종 때의 淸燕閣, 紗樓, 天章閣, 臨川閣, 文牒所, 인종 때의 書籍所 등이 있었다.[10]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국가의 사적을 보관 관리하였던 기관으로 궁 안에 殿, 館, 閣 등을 세우고 많은 典籍을 모아 왕의 顧問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세종 때 설치된 집현전이후로 홍문관, 규장각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집현전은 왕실의 학술과 문화정책을 위한 중심기구로서 도서관의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곳에는 다섯 칸의 藏書閣을 짓고, 고금의 경적을 소장하여 그 기능을 도왔다. 세조 2년(1456) 집현전이 혁파되고, 1463년에 설치된 홍문관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登瀛閣은 홍문관의 장서처로 집현전에서 이관된 서적과 새로 인출된 책과 書寫官들의 繕寫本 및 화원이 제작한 화첩, 왕의 재가를 얻어 연경에서 구입한 서적 등을 소장하였다.[11]

본격적인 御製類 서적의 관리는 정조의 奎章閣제도의 시행이후 체계적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순조 21년(1821) 실록의 기사에 "세조와 숙종 두 조정에서는 奎章閣이란 명칭만 있고 설치되지 않아, 송나라의 龍圖閣, 天章閣의

8)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城南: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9) 裵賢淑, "三國時代 文庫의 發達,"「書誌學硏究」제14집(1997.12), 241-271.
10) 南權熙,「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11) 沈暻俊, "登瀛閣考,"「書誌學硏究」創刊號(1986.9), 5-43.

제도처럼 御製를 봉안할 곳이 없었다. 이에 內苑에 규장각을 건립하였고, 列聖의 宸章, 寶翰을 별도로 奉謨堂에 봉안하였다."[12]는 기록으로 확인된다.[13]

어제류 서적의 보관에 대하여 좀더 자세한 기록은 정조 즉위년 규장각 설치에 대한 실록의 기사에서 "처음에 御製閣으로 일컫다가 뒤에 肅廟 때의 御偏을 따라 규장각이라 이름하였는데, 위는 다락이고 아래는 툇마루였다. 그 뒤에 當宁의 御眞, 御製, 御筆, 寶冊, 印章을 봉안하였는데 그 扁額은 숙종의 御墨이었으며, 또 宙合樓의 편액을 南楣에 게시하였는데 곧 당저의 御墨이었다. 서남쪽에는 奉謨堂이었는데, 열성조의 御製, 御筆, 御畵, 顧命, 遺誥, 密敎와 璿譜, 世譜, 寶鑑, 狀誌를 봉안하였다. 正南에는 閱古觀인데 상하 2층이고, 또 북쪽으로 꺾여 皆有窩를 만들었는데 중국본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고, 正西에는 移安閣인데 어진, 어제, 어필을 移奉하여 포쇄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서북쪽에는 西庫인데 우리나라 도서와 문적을 간직하였다"[14] 고 하였다.

봉모당은 규장각의 본각인 주합루의 서남쪽 언덕 위에 있던 옛 閱武亭을 이용하였다. 열성조의 御製, 御筆, 御畵, 顧命, 遺誥, 密敎, 璿譜, 世譜, 寶鑑, 狀誌를 이곳에 옮겼다. 그러나 그 건물은 중앙이 겨우 한 칸이고 곁에 夾室과 龕榻을 마련한 협소한 건물이어서 철종 8년(1857) 1월에 규장각의 본원인 이문원 북쪽에 있던 大酉齋로 옮겼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자 봉모당을 종친부로 소속시켰는데, 경복궁으로 천궁할 때 규장각의 이문원은 영추문 안 동북쪽에 지은 건물로 옮기고, 어제, 어필, 어진, 선원보 등 봉모당 자료는 건춘문 밖의 옛터에 세운 종친부로 옮겨졌다.[15]

봉모당의 서적의 소장과정을 알려주는 여러 문헌 중에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기록이 김종수의 「夢梧先生文集」 전한다. 문집에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영조의 어제를 봉안한 후 열성어제와 각판이 종부시에 있는 것이 많아 이를

12) 「純祖實錄」, 21년 8월 甲申
13) 愼鏞廈,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硏究," 「奎章閣」 5(1981).
14) 「正祖實錄」, 卽位年 9月 癸巳
15) 千惠鳳 "藏書閣考-奉謨堂의 沿革·機能 및 그 藏書를 中心으로-," 「東喬閔泰植博士古稀紀念儒敎學論叢」 1972.

옮기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김종수가 종부시의 고사를 살폈는데 그 내용은 숙종 22년(1696)에 종부시에 규장각을 두어 열성어제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김종수의 "珍藏閣御製御筆移奉奎章閣事實記"에는 열성어제 86본, 석각 41본, 목각 211본 목판 1650편, 옥축 3본 등을 옮긴 기록이 남아있다.[16]

규장각 소속의 봉모당은 이후 갑오경장의 직제개편에 따라 규장각이 奎章院으로 개칭되면서 궁내부에 소속하였으며, 종래 종친부가 분리, 관장하던 업무가 다시 환원되었다. 그 뒤 명칭과 직제가 자주 개정되었는데, 1908년에는 규장각 기구가 分課制度로 개편되어 典謨課, 圖書課, 記錄課, 文書課의 4개과가 설치되었다.

그 중 典謨課에서 선원보첩과 敦寧譜牒의 편찬, 수정 및 보관, 역대 임금의 어제, 어필, 어장, 어진의 圖寫 및 보존, 봉심 및 제전의 참여 등 종래의 봉모당과 종친부의 업무를 모두 관장하였다. 이 때 소장한 자료의 목록이 「奉謨堂及奉謨堂後庫奉藏書目」 3책, 「奉謨堂冊寶印信目錄」 1책, 「譜閣奉藏品目錄」 1책이다.

장서각이라는 명칭은 초기에 집현전, 홍문관, 춘추관 등 학술기관의 부속건물, 지방 史庫나 개인의 소장고에 붙여져서 쓰여진 이름이지만 왕실자료로 한정한 것이 아니었다. 왕실도서의 보관처로서 장서각의 명칭이 정해진 것은 1915년 창경궁에 李王職圖書室을 현대식으로 새로 짓고 그 편액을 1918년에 처음으로 걸면서부터이다.

장서각을 이야기 할 때 봉모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장자료가 정조즉위년에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설치한 봉모당의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의 장서는 奉謨堂에 보존되어 있던 역대 임금의 모훈서외에도 설립 초기에 적상산사고로부터 移奉된 도서와 서울 각처 군영으로부터 구위대에 이관되어 온 군영 관계 서적, 그 밖에 황실에서 새로 구입한 도서, 창덕궁 안 선원전에 소장하고 있던 謨訓書, 6·25 이후 樂善齋에서 이관된 한글소설류, 七宮의 소장본, 1970년 宗廟 및 여러 陵齋室 등에서 典禮관계 도서가 이관되어 지금의 장서각도서의 주축을 이루게 되었다.[17]

---

16) 金鍾秀, 「夢梧先生文集」 卷四, 珍藏閣御製御筆移奉奎章閣事實記.

장서각은 조선 말기의 혼란기를 거쳐, 1911년 6월 19일 "李王職藏書閣"으로 건립되었으며, 1915년에 창경궁 안에 신축된 서고로 이전되고, 1918년에 서고를 "藏書閣"이라 이름하였다. 1937년에는 李王職博物館이 덕수궁으로 이전하자 장서각을 옮겼으며, 1948년 광복이후 미군정청은 李王職을 舊王宮事務廳으로 개편하였다. 1955년 장서각의 관리는 구왕궁사무청으로부터 창경원 사무소로 이관되었으며, 1961년 9월13일에 일반열람이 허용되었다. 그것이 1969년 11월 5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문화재관리국의 관리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자료가 1972년에 정리되어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및 보유편으로 출간되었다.[18] 장서와 목록은 1981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자료도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2 歷代 書目의 御製類

어제서의 범위는 현재까지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역대 서목에 나타난 어제서를 정리하여 보았다. 사실상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사항이지만 장서각에 소장된 어제류 서책을 파악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의미에서 이제까지 어제서를 저록하고 있는 서목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기술방식이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어제는 일반적으로 왕과 왕비가 직접 저술하거나 왕명을 받아 대신 편찬한 문서 또는 책으로 "聖製" 또는 "聖作"이라 하기도 한다. 승정원의 승지, 예문관, 집현전, 홍문관의 職으로서 知製敎의 직을 겸한 문신들, 御製編次人 그리고 규장각의 閣臣들이 왕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어제의 범위는 그다지 확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장된 자료의 목록을 조사하여 보면 동일한 서명의 어제가 다른 주제분야에

17) 千惠鳳, 前揭論文
18) 千惠鳳, 上揭論文

포함되어 있거나 御定書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으며, 御撰 등과 같이 혼돈하여 쓰고 있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작역할어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는 동종의 御製에 대한 저자의 역할 표시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어제류 서적의 종합적 정리와 새로운 연구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장에서는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歷代 書目에 나타난 어제서의 범위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高麗時代의 淸讌閣이나 臨川閣과 朝鮮時代의 集賢殿에 四部圖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체계는 상고할 수 없다. 현존하는 書目 중에 어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그 편찬연대에 따라 御製類의 類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解題書目으로 金侙가 仁祖 15년(1637)에 편찬한 「海東文獻總錄」에는 제일 먼저 御製항목을 두고 있다. 특히 고려시대의 어제로 「睿宗唱和集」과 「龍樓唱和集」을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서책을 수집하여 편성한 역대 서목에서 御製類만을 모아 독립된 류문으로 설정한 것 중 가장 앞선 것이다.

조선본을 소장한 규장각 西庫의 書目 중 정조 14년(1790)에 편성된 「西庫藏書錄」은 四部分類法에 의하지 않고 총 25類門[19]과 江都移來件, 內下舊件, 奉謨堂移來件, 御製類, 冊文敎命類, 當宁御製類, 綸音 등의 32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도서와 유문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고 서목 편찬 당시 임금의 어제는 구분하여 저록하였다. 또한 책문이나 교명, 윤음 등을 어제와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이 목록은 奎章閣의 韓國本을 대상으로 수록한 목록 중에는 현재까지 가장 앞선 것이다. 御製類에는 「列聖御製」 11건 등 43종의 어제를 저록하였다. 서명 아래에 해당 서책의 상태를 빠짐없이 적고 있는 것도[20] 있어서 작성 당시 서책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다.

---

19) 經書類 史記類 儒家類 禮書類 典章類 諸子類 文章類 詩家類 字書類 天文類 地誌類 類聚類 醫書類 兵家類 堪輿類 譯書類 道釋類 方技類 中國文集 勝國文集 國朝文集 雜類 族譜類 謄書類 書畵帖本類

20) 예를 들면 「列聖御製」 十一件의 경우 一件十一冊 三件各二冊 一件八冊 三件各二十一冊 一件四冊 一件三冊 一件一冊으로, 「列聖誌狀」 六件의 경우 一冊 第二冊洛 이라고 기록하였다.

「西序書目籤錄」은 「西庫藏書錄」과 같은 西庫의 서목으로 정조 16년(1792) 경에 徐浩修와 徐有榘에 의하여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이다. 四部分類 중심으로 甲庫 經部, 乙庫 史部, 丙庫 子部, 丁庫 集部의 전체 40類로 나누었는데, 「西庫藏書錄」과는 달리 御製類를 四部에서 독립시켜 御製御筆, 璿牒璿譜, 御定으로 나누어 분리시키고 「西庫藏書錄」에서 별도 취급된 江都移來件, 內下舊件, 奉謨堂移來件 을 各類 에 포함시키고 있다.[21] 御製御筆 은 「列聖御製」 10부을 포함한 50종이며, 璿牒璿譜은 「列聖誌狀通紀」 7부를 포함한 22종, 御定은 「啓蒙要解」 17부를 포함한 24종이다.

「西序書目草本」은 正祖 19년(1795)에 奎章閣의 閣臣과 檢書官이 관여하여 편찬한 후, 계속하여 추가하면서 수정하여 장서점검을 행한 흔적이 보이는 목록으로 「西序書目籤錄」과 전반적인 체계는 같지만 부분적으로 합쳐지거나 이동한 예를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22] 특히 四部의 앞에 御製御筆, 璿牒璿譜, 御定類를 둔 것은 「西序書目籤錄」과 동일하지만 부분적으로 배열의 순서를 수정한 것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西序書目籤錄」에서는 후기에 제작되어 뒤에 놓인 것이 「西序書目草本」에서는 先代王의 순서에 의거하여 앞에 놓인 御製筆帖 도 있다.

「摛文院書目」은 정조 3년(1779)에 설치된 摛文院의 소장 장서목록이다. 摛文院은 본래 역대왕의 御製, 御筆, 璿譜, 世譜와 當代의 御製, 御筆을 맡아서 보관하였으며, 內閣學士의 職務所, 奎章閣 事務所의 역할 및 書籍 의 出納, 選定, 出版, 왕의 璿源殿 참배시 재숙소, 강제문신의 課試, 課講의 장소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摛文院書目」은 장서각에 2종, 규장각에 2종이 전해지고 있다. 장서각에 소장된 두 書目을 비교하여 보면 소장책수와 내용, 필체가 서로 다 것을 알 수 있다.[23]

「奎章閣志」에 "…本閣의 장서는 모두 宋代의 太靑樓와 明代의 文淵閣制度를 모방한 것으로 御製를 奉安하는 곳이고 서적을 두는 장소로서 어떤 경우

21) 南權熙, "西序書目籤錄 解題," 「奎章閣」 12(1989), 63.
22) 南權熙,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 分析 ; 現存書目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大學院, 1983), 142.
23) 옥영정, "摛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 12(1992).

는 새로운 서적을 구입하고 어떤 경우는 善本을 翻刻하였다. 外閣 및 各道에서 사사로이 간행되는 서적은 역시 外閣官 該當道臣으로 하여금 그 새긴 劃(過程)에 따라 즉시 인쇄하여 摛文院에 보낸다. 중국본을 皆有窩에 東本은 西庫에 보관한다."[24]고 하여 外閣이나 각지방 감영에서 印出된 서적이 摛文院을 거쳐 西庫나 皆酉窩에 보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문원의 서목 중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藏書閣本「摛文院書目」(2-4657-1)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862종이며 그 分類는 御製御筆(271종), 璿葉璿譜 (44종), 御定諸書 (76종), 唐板 經部 (13종), 史部 (34종), 子部 (19종), 集部 (57종), 常 經部 (32종), 史部 (102종), 子部 (62종), 集部 (118종), 別峙 (34종)로 구분되어 있다. 御製御筆은 그 배열순서를 상세하게 구분짓기 어려우나 자료의 형태별로 帖과 簇子를 구분하였고 帖의 형태로 된 자료를 앞서 배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본과 한국본을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經, 史, 子, 集으로 나누었으며 맨 뒤에 閱古觀으로부터 移送된 中國本 34종을 두었다.

「群書標記」는 정조 23년(1799)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조 자신의 어제와 신료들에게 명하여 편찬·간행한 책 155종을 대상으로 엮은 해제집이다.[25] 정조의 문집인「弘齋全書」권179-권184 에 실려있으며, 御定編 4권, 命撰編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西庫書目」은 高宗 5년(1868)에서 6년(1869)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西序書目草本」의 類門과 비교하면 總集類를 제외하고는 細區分을 하는 屬位의 개념이 없어졌고, 別藏의 항목에 분류하기 어려운 책이거나 帖本, 탁본 등 보관상 주의를 요하는 것을 별치시키고 있다.[26] 御製御筆과 璿牒璿譜, 御定諸書를 첫부분에 두어 먼저 나오게 하였고 그 중에 御製御筆에는「列聖御製」등 114종의 서책을 저록하고 있다

---

24) 奎章閣志 卷一, 藏書條 …藏書之法 柱下東觀無論己唐宋明之初皆以此爲先務者 以書籍係世道升降也 本閣藏書 盖取宋朝太淸樓 皇明文淵閣之遺制因御製奉安之地 置書籍尊閣之所 或購求新書或翻刻善本 而外閣及諸道私刊之書亦令外閣官該道臣隨其刱劂劃卽印送摛文院 華本則藏之皆有窩 東本則藏之西庫…

25) 신승운, "군서표기해제,"「국역 홍재전서」1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26) 南權熙, 上揭論文. 107.

「鏤板考」는 정조 20년(1796) 정조의 명에 의하여 편찬된 중앙 및 지방의 책판목록으로 일반적인 책판 목록과는 달리 사분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저록에 해제를 붙이고 있다. 이 목록은 전체 6권 중 제1권이 御撰, 御定書이다. 御撰은 「列聖御製」를 포함한 20종[27]의 저술을, 御定은 「訓義資治通鑑綱目」을 포함한 54종을 저록하고 있다.

「寶文閣冊目錄」은 순조 1년(1801)에서 고종 5년-6년(1868-1869)사이에 편성된 것으로, 書筵이나 經筵에 필요한 강의 자료 및 왕의 顧問에 대비하기 위하여 寶文閣에 소장되었던 책의 목록이다.[28] 御製御筆과 璿牒璿譜, 御定을 먼저 두어서 「西庫書目」과 비슷한 체제를 보이고 있으며 御製御筆에는 「列聖御製」 등 39종, 璿牒璿譜에는 「列聖誌狀通紀」등 9종, 御定에는 「御定論孟人物類聚」 등 47종의 서책을 저록하고 있다.

「承華樓書目」은 창덕궁 내에 있는 承華樓에 간수된 書冊, 書帖, 書簇, 畵簇 등의 목록으로 哲宗 年間(1850-1863)에 작성된 것[29]으로 보인다. 承華樓는 헌종이 書畵를 간수하고 이를 常時로 보기 위하여 세운 樓이다. 經, 史, 子, 集類 외에 詩類, 文類, 筆家類, 畵家類, 印譜類, 叢書類, 尺牘類, 說家類, 兵家類등 23類로 분류하여 910종 4,555점을 수록하고 있는 書架目錄이지만 御製를 위한 독립된 類門은 없고 書帖으로「列聖御筆」과 선조, 영조, 정조, 순조, 헌종의 어필을 15종 23점 수록하고 있다.

「緝敬當曝曬書目」은 경복궁안의 緝敬堂에 소장하였던 도서를 포쇄하면서 점검용으로 편찬한 서목이다. 緝敬堂은 고종 5년(1868) 경복궁이 중건된 후에 세워졌으며, 宮內 燕寢곁에 있었으므로 이 곳에 소장한 도서를 '內府秘藏'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총 12部[30]로 분류되어서 緝敬堂에 소장되었을 때의 서가배열 형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이는 이 서목은 御製만을 위한 독립된 類門이 없고 각

27) 列聖御製, 光國志慶錄, 大訓, 常訓·續常訓, 自省編·續編, 古今年代龜鑑, 追慕錄, 揄揚盛烈錄, 警世問答·續錄, 雲漢篇, 百行源, 小學指南, 永世追慕錄·續錄, 續光國志慶錄, 樹德全編, 耆耋宴會錄, 勸世爲孝悌文, 定銅闈冠禮文, 心鑑, 關東賓興錄

28) 金東煥, "寶文閣의 變遷과 寶文閣冊目錄,"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大學院, 1984), 44.

29) 南權熙, "承華樓書目考," 「社會科學硏究」第3卷 (1987), 69.

30) 經部, 史部, 子部, 集部, 書畵部, 韻部, 醫部, 算部, 新奇部, 雜著部, 詩帖部, 小說部

部內에 흩어서 御製를 배치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經部內의 「御詩經」, 「御纂詩經」, 「御纂禮記」, 「御纂儀禮」 등을 각각 「詩經」, 「禮記」의 다음에 수록하고 있다.

藏書閣에 소장된 「閱古觀書目」은 「奎章總目」의 下位 單位本이 아니라 고종 年間에 필사된 독립된 別本으로 "閱古觀書目" 64장, "皆有窩北方書目" 5장, "文獻閣書目" 11장, "演慶堂書目" 4장이 합본되어 있다. 그 중 "文獻閣書目"에 御製 7종, 璿牒 2종, 御定 3종이 실려있다.

1905년 이전에 편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春坊藏書總目」은 왕세자의 교육 등을 관장한 春坊, 즉 侍講院에서 소장한 서책의 목록으로 총 14類門[31]과 內下別峙類, 追錄類, 落帙類 등의 17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시강원의 장서는 高宗 32年(1895)에 侍講院이 폐지된 후 1908년 이후에 奎章閣 圖書課에 移管되어 奎章閣圖書에 통합되었다. 어제류는 列朝御製御筆로 列朝東宮日記와 함께 첫 부분에 설정되어 있으며, 모두 88종을 싣고 있다. 연구[32]에 의하면 列聖朝御製御筆類 88종 중 10종의 서적이[33] 장서각에 소장된 侍講院 藏書印이 날인된 서적과 일치하고 있다.

장서각에는 모두 3종의 侍講院 장서목록이 전해지고 있는데 1종이 「春坊藏書總目草本」(2-4671)이고 2종이 「春坊藏書總目」이다. 서적의 배열 순서나 책 수가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내용 중 追錄類[34]가 「春坊藏書總目草本」에만 기록되어 있고 특히 「春坊藏書總目草本」은 다른 書目과 필체와 숫자표시[35]

31) 列朝御製御筆, 列朝東宮日記, 經書類, 史記類, 儒家類, 諸子類, 兵家類, 醫家類, 文集類, 典故類, 類書類, 字書類, 書法類, 雜書類.

32) 옥영정, "春坊藏書總目考," 「韓國書誌學論集」 恒心尹炳泰博士停年紀念論文集 (서울: 民昌文化社, 1999).

33) 그 내용을 살펴보면 「御製內訓」(1737年 戊申字 3冊), 「續光國志慶錄」(1771年 1冊), 「御製常訓」(1745年 木板本 1冊), 「戒酒綸音」(1757年 木板本 1冊), 「御製心鑑」(木板本 1冊), 「廣孝錄」(1765年 木活字 1冊), 「御製讀書錄」(1767年 木板本 1冊), 「景賢堂宣麻錄」(1766年 戊申字 1冊), 「御製近八裕昆錄」(1769年 木板本 1冊), 「御製經世編」(1764年 木板本 1冊)의 10종이 일치하고 있다. 일치하지 않은 나머지 76종의 서적들은 대부분이 侍講院의 印章이 捺印되지 않은 藏書閣 소장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4) 追錄類는 總 25種 102冊이다. 장서각의 「春坊藏書總目草本」과 같은 책이 규장각에도 「春坊藏書總目」(규11671)으로 남아있다.

35) 藏書閣本 「春坊藏書總目草本」 전체와 규장각본 「春坊藏書總目」의 追錄類에는 "一,

가 다르고 서명의 글자를 수정한 흔적도 보인다.

각 類의 서적내용이 끝나는 마지막 서명 다음 칸에 그 類의 전체 책 수를 기입하고 있으며, 總目의 내용에는 追錄類가 기록되어 있으나 목차에는 빠져 있다. 이는 追錄類에 쓰여진 필체가 다른 류의 것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總目의 작성 당시 여백을 남겨두고 후에 추가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春坊藏書總目」의 분류체계는 전통적인 四部分類體系가 아니라 독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類門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기존에 알려진 여러 書目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그 구분에 있어서는 奎章閣 書目의 하나인 「西庫藏書錄」의 분류와 비슷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각 류에 나타나는 서적의 배열기준은 列朝御製御筆, 列朝東宮日記類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분류기준을 지니고 있지 않다. 列朝御製御筆과 列朝東宮日記類는 그 서적의 편찬시대별로 구분하여 배열하고 있다.

「增補文獻備考」의 藝文考는 正祖 20년(1796)에 완성한 「增訂文獻備考」를 隆熙 2년(1908)에 증보한 것으로 卷242부터 卷250까지의 9권에 실려있다. 藝文考는 총 21類[36]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 제245권 예문고 4에 御製를 싣고 있는데 箕子朝鮮, 新羅, 高句麗, 高麗, 朝鮮으로 구분하였고 御定書를 구분하여 列朝御定諸書의 항목에 기술하고 있다.

「帝室圖書目錄」은 1909년 11월 奎章閣 圖書課에서 편간한 것으로 奎章閣, 春坊, 集玉齋, 北漢山城行宮 의 장서 등이 모두 포함되어 3,353종을 수록하고 있다. 이 목록은 醫家類의 순위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四庫全書總目」의 四分法을 그대로 채용하고 있지만, 屬位까지 구분하지 않고 類位 까지만 類目의 전개를 하였다. 저록 수에 있어서 朝鮮朝의 書目중 가장 방대한 목록이지만 어제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술하지는 않았고 經部 樂類에 「御製樂章」, 小學類에 「御製條問」, 史部 編年類 에 「御製歷代通鑑纂要」, 「御製續資治通鑑綱目」 등과 같이 각 部의 류문에 흩어서 御製를 수록하고 있다.

한편 御製類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봉모당의 서목도 있는데 「奉謨堂奉

二, 三, 四…"로, 다른 목록에는 모두 "壹, 貳, 參, 肆…로 표시하고 있다.

36) 歷代書籍, 歷代著述, 史記, 御製, 列朝御定諸書, 儒家類, 典章類, 文章類, 歌曲類, 故實類, 雜纂類, 象緯類, 輿地類, 兵家類, 字書類, 抄集類, 譯舌類, 醫家類, 農家類, 釋家類, 文集類.

安御書總目」,「奉謨堂奉安書目」,「奉謨堂後庫奉藏書目」 등이 그것이다.

「奉謨堂奉安御書總目」은 규장각 소장본으로 3권3책이며 권1에 보첩, 지장, 보감, 遺敎, 大寶, 御製, 권2에 御製, 권3에 御製, 憲進帖, 御筆, 御筆刻版, 御畵, 御押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御製 의 경우 먼저 서명을 적고 권책수와 편찬연대의 간지를 표시하였으며, 御筆, 御畵 등은 그 제목만을 기술하였다. 간혹 제목의 끝에 봉안시기를 적고 있다.

「奉謨堂奉藏書目」은 장서각 소장본으로 1권, 2권의 2책이 있다. 「奉謨堂奉藏書目」1권은 列聖의 御製, 御筆, 御畵, 顧命, 遺誥, 訓諭, 璿譜, 世譜, 寶鑑, 狀誌, 諱號, 冊文, 碑文, 表石, 額記, 陵殿, 圖形, 功臣會盟軸 등을 閣內의 보존 서가의 순서에 따라 혼합하여 저록하고 있다. 閣外에는 묘비, 표석, 족자, 어필석각 등도 적고 있어서 책이나 첩 이외에 족자, 석각, 서화 낱장류 등도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奉謨堂奉藏書目」제2권은 영조의 어제만을 수록하고 있는 서목으로 寫本과 刊本을 구분하여 저록한 것이 특징이다. 어제 사본이 제1函-제26函에, 간본이 上下 2개의 함에 분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5,369책이다.

「奉謨堂後庫奉藏書目」은 列聖御製部, 御製睿製部, 御製綸音部, 列聖御製御筆部, 御製御筆致祭文部, 御筆御畵部, 誌狀部, 冊寶文部, 御製賡韻部, 陵園墓表石搨本部, 紀蹟碑文部, 樂章文部, 輓章文部로 분류하고 부록으로 寶鑑, 實錄寶鑑, 訓要, 儀軌, 講學, 聽政, 陵殿樓閣誌 及 圖形類를 싣고 있다.

「奉謨堂奉安御書總目」,「奉謨堂奉安書目」,「奉謨堂後庫奉藏書目」 등의 봉모당 소장서목은 다양한 어제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御製類 서적의 간행과 왕실 출판

조선시대 어제류 서적의 편찬은 초기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조 9년(1427) 前王의 어제시문을 거두어 모으게 하였고,[37] 그 이듬해 梁誠之가 왕명을 받들어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어제를 수습하고 세조의 시문을 찬집하여, 「祖宗朝聖製集」 1권과, 「御製詩文集」 3권을 수찬하여 올리기도 하였다.[38] 이후에도 어제를 편찬하거나 이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역대 왕의 어제를 수습하고 편찬하여 간행하는 일은 관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제를 편찬하여 간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세조가 "永順君 李溥에게 명하여 御製詩를 내어 梁誠之에게 주게 하며 搜覓을 더하여 빠짐이 없이 抄錄하도록 하고, 이어 申叔舟에게 祖宗의 詩를 장차 刊板하고자 하니, 刪削하고, 또한 간판하고자 하는 것을 보이라."[39]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 아직까지 조선초기의 어제 간본은 실물이 전하지 않고 있지만 초기부터 간행이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어제류 서적의 편찬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은 조선후기인 정조에 이르러 규장각을 설치하고 각신들로 하여금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완비되고 체계적으로 정해졌다.

정조는 즉위 후 영조가 御製編次人을 두고 어제를 편차한 데 관심을 두고 이를 제도화시키려 하였다. 이에 따라 명나라의 內閣이 관장하던 御集纂修의 제도를 본받아 규장각의 編書之法을 규정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도서를 편차하도록 하였다.[40]

그 중 御製之法은 왕의 제술을 편차하는 규정인데, 그 자세한 내용이 「奎章閣志」編次第四 會粹, 繕寫 조항에 잘 나타나 있다. 회최조항은 규장각의 각신들이 어제를 유별하여 정리하는 규정이고, 선사조항은 寫字官이 어제를 선사하여 각신의 考準을 받고 다시 왕의 재가를 거쳐 완료하는 과정을 규정

37) 「世祖實錄」, 9년 4월 22일
38) 「成宗實錄」, 13년 2월13일
39) 「世祖實錄」, 14년 8월 14일
40)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纂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硏究," (成均館大學校 대학원, 博士學位論文, 1989).

한 것이다. 즉 현재 御製에 대한 범위를 정할 때 文臣들, 御製編次人 그리고 규장각의 閣臣들이 왕명을 받아 편찬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정조시대 규장각제도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당시 御製는 규장각의 각신이 22目 의 류별로 나누어 편차하였으며 22목외에 다른체제로 제하되는 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체제에 따라 目을 세우고 類會하도록 하였다. 어제의 繕寫는 寫字官이 담당하였고, 續謄에 대비하여 上下編으로 나누고 下篇은 空紙로 남겨두었다, 검서관이 각신을 도와 考準한 후에 왕의 재가를 거쳤고 續謄까지 완료된 것은 摛文院, 奎章閣, 大內에 각 1부씩 보관하였다.[41]

寫字官은 규장각의 雜織으로 8명이며 어제의 繕寫와 印札하는 일을 맡았다.[42] 어제가 목판본으로 간행될 경우 사자관의 글씨를 그대로 써서 판각하기도 하였다.

비록 간본이 아닌 필사본이지만 翼宗(효명세자)의 문집인 「敬軒集」(藏4-20, 藏4-21)의 편찬과정을 역은 「睿製繕寫謄錄」(藏2-3657)에는 간행이전 어제류 서적의 편찬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翼宗이 죽고 2년 후인 순조 32년(1832) 9월26일 睿製草本 4책을 내각에서 繕寫하여 들이되, 1건은 粉唐紙에, 2건은 冊壯紙에 쓰라고 하였다. 같은해 윤9월 3일에 선사를 시작하여 한달 만에 완성하였다. 謄錄에는 監董閣臣, 寫字官, 서리 등의 명단과 상급을 기록하였으며, 선사과정에 誤字 를 바로잡은 사실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규장각은 校書館을 규장각의 外閣 으로 소속시키면서 모든 간행업무를 규장각의 관장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어제서의 간행에 대한 규정도 「奎章閣志」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간행의 과정은 크게 監董人의 선정, 간행방식의 결정, 간행 등의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감동인의 선정은 御編諸書와 御製書를 刊印하라는 왕명이 있을 때 왕이 특별이 지정한 감동인이 없으면 內閣이 時原任閣臣 을 列書

41) 奎章閣志, 編次 第四
42) 奎章閣志, 職官 第二 差除條

하여 入啓하고 왕의 지정을 받는 방식이었다.[43]

간행방식의 결정은 活字와 樓板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루판의 경우 활자본을 번각하거나 寫字官이 正書하여 새겼는데 監董閣臣이 외각에 나아가 匠人을 모아 印役을 맡기었다. 활자로 인출할 경우에는 감동관이 壬辰字, 丁酉字, 壬寅字(再鑄韓構字) 중에 어느 활자로 인출할 것인가를 稟旨하였다. 활자의 보관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내각에 있는 丁酉字나 壬寅字(再鑄韓構字)로 인출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외각으로 이들을 옮겨서 인출하였고 인출이 끝나면 다시 內閣에 보관하였다.[44]

실제로 정조의 어제인 「弘齋全書」나 「列聖御製」의 정조편을 간행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弘齋全書」의 경우 4차례의 편찬과정이 있었고[45] 그 간행과정을 실록의 기록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순조 13년(1813) 6월 왕이 명하기를 규장각 각신이 주관하여 선왕의 어제를 인쇄하는 일을 시작하되 소용경비는 관례를 따라 內帑庫에서 내려주고 활자는 정리자를 사용하라고 하였다.[46] 이 책은 순조 14년(1814) 3월 22일 100책으로 완간되었으며 奉慕堂, 宙合樓, 望廟樓, 水原의 華寧殿, 文獻閣, 5곳의 史庫, 內閣, 弘文館, 世子侍講院 등에 각각 1질씩 보관하도록 하고 참여한 관리와 소속관원에게 시상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시문을 선별하여 「列聖御製」正祖편이 40권 22책의 분량으로 간행되었다. 열성의 어제를 간행하는 일을 마치고 참여 관원에게 시상하는 기록은 매번 열성어제가 간행될 때마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판본으로 간행할 경우 그 과정은 대체로 판목다듬기, 글자새기기, 교정하기, 찍어내기, 판목간수하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47] 어제류 간본의 경우도 이와 같았으며 각 과정마다 필요한 장인과 소요되는 물자 등이 달랐다.

---

43) 「奎章閣志」, 編次 第四 刊印條
44) 上揭書.
45) 金文植, "正祖 御製集 「弘齋全書」의 書誌的 特徵," 「藏書閣」 제3집(2000) 7-33.
46) 「純祖實錄」, 13년 6월 9일
47) 南權熙, "韓國의 木板印刷 硏究," 「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3), 101-134.

특히 판을 새기는 각수는 전문기술자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전국 각지에서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內閣日曆」의 기록에 의하면 각수 1인당 목판 1판을 새기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3일임을[48] 밝히고 있으며, 「國朝寶鑑」의 편찬과 간행과정을 기록한 「國朝寶鑑印廳儀軌」에서도 板刻과 製冊에 관련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國朝寶鑑」을 간행하는데 寫字官 1명, 補字官 1명, 唱準 10명, 畵員 1명, 守欌諸員 8명, 上板諸員 2명, 粧冊諸員 11명, 校書館 刻手 8명, 私手 14명, 각지방 동원 刻手 120명, 均字匠 8명, 校書館 印出匠 6명과 私手 4명, 小木匠 2명, 木手 2명, 推造匠 2명, 訓鍊都監 多繪匠 2명, 除刻匠 4명, 豆錫匠 2명, 柒匠 1명, 朴排匠 1명 등이 동원되었다.

왕실의 목판간행의 일면을 살필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로 「侍講院冊役所日記」도 있다. 장서각 소장본인 이 책은 왕세자교육기관인 侍講院에서 세자교육에 필요한 서적을 출판하면서 그 전체 일정을 담은 일기로 高宗 16年(1879) 9月 3日부터 高宗 17年(1880) 11月 16日 사이의 기록을 적고 있다. 즉 純宗의 동궁시절에 講學用으로 필요했던 각종 서적의 출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다.[49]

1879년 9월 3일 부터 일기가 시작되고있는데 첫 부분에 출판관련 종사자의 명단이 있다. 즉 監董官 이하 書吏, 使令, 房直, 使喚軍을 한줄로 나열하고 있으며 寫字官, 畵員, 唱準, 計士, 粧冊諸員, 印出匠, 刻字匠, 守欌諸員, 均字匠, 校正匠, 小木匠, 除刻匠, 粧頭匠, 多繪匠, 豆錫匠, 推造匠, 分類匠, 搗砧匠 등의 명단을 두줄로 구분하여(寫字官, 畵員, 唱準, 計士를 위쪽에, 나머지는 아랫쪽에) 적고 있다. 그 내용 중 각자장의 명단에 지명이 병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 들은 모두 그 지방의 刻手로 책역소의 공역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이다. 실제로 해당 지방관아에 내린 甘結과 그 내용까지 「侍講院冊役所日記」에 기록하였다

刊役은 날을 잡는 것부터 시작된다 9월 3일에 시강원에서 아뢰기를, "內에

48) 「內閣日曆」, 正祖 6年 4月 26日, 上曰 刻手以京居人數付役乎 念祖曰在京人太甚不足 以兩南兩西諸處所在人 發關上來似好矣 昌聖曰刻手一人所刻 三日當爲一板 訖役遲速 專在於匠手多寡矣

49) 옥영정, "侍講院의 書籍編纂과 刊行記錄 考察," 「書誌學硏究」 제 18집 (1999.12) 369-393.

들일 새로 만들 책자의 頤頷懸吐와 새로 간행할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略」, 「全韻玉篇」의 刻役을 시작할 吉日을 日官으로 하여금 가려 뽑게 하였더니, 이 달 6일 卯時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일시로써 거행하겠다." 고 하였고[50] 각 역의 監督官(輔德, 兼輔德, 弼善, 兼弼善)을 정하여 전교하였으며,[51] 실재로 9월 6일부터 일이 시작된 것으로[52] 冊役이 정해진 날부터 일기를 적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번 冊役때에, 일을 끝마칠 때까지 감독관 4원이 매일 나갔나 나가지 않았나를 기록한 단자를 3일씩 모아서 수정하여 써서 들이라."[53]고 하교한 것 또한 책역소일기의 편찬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같은 해(1880年) 7月 10日의 기록에는

> "…相考 할 일, 지금 世子宮에 들일 冊子는 史略 第6, 第7卷 合 166張, 續史略 1冊 78張, 全韻玉篇 1秩 合 158張, 都合 402張으로 刊本으로 만든 板을 每 한 가마솥당 열장씩 소금물로 익힐 때 正時에 들어갈 것. 燒木(땔나무) 20丹, 소금 한말과 書傳 武成篇 洛誥篇 合 13張의 활자로 印出할 때 所用되는 初·再·三紙와 千字文,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畧, 七書, 孝經, 小學, 禮記, 春秋, 綱目, 全韻玉篇 합쳐 5125冊의 冊面張 세 곳에 官印을 찍을 때에 所用되는 印靑, 唐靑花墨 등의 物力을 정히 헤아려서 마련하여 급히 輸送해 오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다. - 戶曹"[54]

의 기록이 나타나는데 이로서 世子宮에 들인 책자와 그 장수, 그리고 木板의

---

50) 「承政院日記」, 高宗16年 己卯 9月 3日 …侍講院 啓曰 內入新造冊子頤頷懸吐 與新刊童蒙先習通鑑史略續史略全韻玉篇刻役. 始役吉日 今日官佥載霖推擇 則今月初六日卯時爲吉云 以此日時擧行之意敢 啓 傳曰知道…

51) 「承政院日記」, 高宗16年 己卯 9月 3日 …以司謁口傳 下敎曰. 今此 內入新造冊子頤頷懸吐 與刻役時監董官 以輔德兼輔德弼善兼弼善爲之.

52) 「侍講院冊役所日記」, 己卯 4月 6日 丙子. …卯時始役··

53) 「承政院日記」, 高宗16年 己卯 9月 6日 … 以司謁口傳下 敎曰 今番冊役時 告畢間 監董官四員 每日進不進單子 合五日 修正書入…

54) 「侍講院冊役所日記」, 庚辰 7月 10日 丙子. …爲相考事 今此世子宮內入冊子 史略第六第七卷合一百六十六張 續史略一冊七十八張 全韻玉篇一秩 合一百五十八張 都合四百二張 刊本自作板每一釜十張式 塩水熟正時所入燒本二十丹塩一斗 及書傳武成篇洛誥篇合十三張 鑄字印出時所用初再三見紙 與千字童蒙先習通鑑史略續史畧七書孝經小學禮記春秋綱目全韻玉篇合五千一百二十五冊面張三處 踏條所用印靑唐靑花墨等物力 定計土磨鍊星火輸送之地 宜當向事 戶曺.

보존을 위하여 소금물에 찌는 과정 및 官印을 날인한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영조의 어제만을 수록하고 있는 「奉謨堂奉藏書目」제2권에는 26함의 寫本 다음에 上下 2函의 刊本을 별도로 수록하고 있다. 모두 76종의 서책(표-1 참조)을 수록하고 있으며 古今年代龜鑑, 續自省編, 抑箴, 永世追慕錄, 自省編, 祖訓, 追感皇恩編, 八旬裕昆錄, 訓書諺解 등은 중복되어 나타난다.

<표 1>「奉謨堂奉藏書目」第二에 수록된 英祖大王御製 刊本

番號	書名	冊數	函	番號	書名	冊數	函	番號	書名	冊數	函
1	風泉錄	1	上	26	續自省編	1	上	49	大訓	2	下
2	八旬瞻東西郊懷千萬	1	上	27	近八裕昆錄	1	上	50	自省編	1	下
3	志喜編	1	上	28	永世追慕錄	1	上	51	中書堂述盛事	1	下
4	題摠府	1	上	29	八旬興懷千萬書示冲子	1	上	52	抑箴	1	下
5	八旬裕昆錄	2	上	30	盛烈錄	1	上	53	續兵將圖說	1	下
6	勤政訓諭	1	上	31	訓書諺解	1	上	54	追感皇恩編	1	下
7	古今年代龜鑑	1	上	32	自醒翁自敍	1	上	55	童蒙先習序	1	下
8	心鑑	2	上	33	八旬書示後昆錄	2	上	56	續自省編	2	下
9	誦孔訓勉今世	1	上	34	誦夙夜箴屬勉冲子 兼示平生予意	1	上	57	回甲編錄	1	下
10	追慕錄	2	上	35	祖訓	1	上	58	孝弟編	1	下
11	自省編	2	上	36	慶運宮賡載錄	1	上	59	興慨	1	下
12	望八隨記	1	上	37	兩朝冊封入學日記	1	上	60	追記潛邸自敍仍戒冲子文	1	下
13	訓書	2	上	38	望八暮年閱早復仐	1	上	61	景賢堂會講略記	1	下
14	近八戒冲子文	2	上	39	祖孫同講大學文	1	上	62	展禮日述懷示冲子	1	下
15	辛卯重光錄	1	上	40	續陟岵三章	1	上	63	昌德慶熙奉安閣記	1	下
16	勸世爲孝悌文	1	上	41	識慶編	1	上	64	金枝玉葉	1	下
17	古今年代龜鑑	2	上	42	樹德全編	1	上	65	八旬裕昆錄	1	下
18	警世編	2	上	43	常訓諺解	2	上	66	感皇恩詩	1	下
19	舊邸庭中賡韻錄	1	上	44	訓書諺解	1	上	67	抑箴	1	下
20	八旬裕昆錄	2	上	45	祖訓	3	下	68	永世追慕錄	2	下
21	讀書錄	1	上	46	敦寧府	1	下	69	小學指南	1	下
22	聖可學問答	1	上	47	暮年堂中書示	1	下	70	古今年代龜鑑	1	下
23	續永世追慕錄	1	上	48	健元陵丁字閣重修記	1	下	71	自省編	1	下
24	耆耇同會錄	1	上	49	王世孫會講後入侍筵說	1	下	72	戒酒綸音	1	下
25	追感皇恩編	1	上	50	永世追慕錄	2	下	75	喜雨	1	下
								76	百行源	1	下

4. 장서각 어제류 간본의 서지적 특징

현재 장서각에 소장된 어제류 중에 刊本의 현황을 파악하고 간행시기, 판본, 형태적 특징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55]. 어제류 간본은 장서각의 소장목록인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에서 모두 82종을[56] 확인할 수 있으며, 이중에 26종이 「列聖御製」이다.

장서각소장 어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종의 총집인 「列聖御製」와 그 외의 자료로 대별할 수 있다. 「列聖御製」, 「弘齋全書」 등과 같이 비교적 큰 규모로 간행한 것을 제외한 대부분이 1책본으로 각 책은 10장-30장의 소규모 저작이 많고 10장미만 이거나 절첩본 형태의 서적도 있다. 이는 어제의 내용이 대부분 왕의 訓戒書, 賡載軸, 讀書錄, 追慕錄, 裕昆錄, 表義錄, 批答, 致祭文 등으로 비교적 짧은 문장형식의 글이 많고 특정한 지시나 훈계, 행사를 치른 후 그 때마다 별도로 간행하였기 때문이다.

간행의 주체는 제위기간이 가장 길었던 영조와 조선시대 학자군주로 추앙되는 정조의 저작이 대부분이며 영조가 정조에게 훈계한 서책도 여러 종 있다.

4.1 간행시기

소장본의 간행시기는 17세기의 「列聖御製」 5종과 宣祖와 仁祖 때 간행된 「仁廟御製批答附」 2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간본이다.

---

55) 御筆의 拓本類 중에도 목판으로 간행된 것이 있으나 이는 탁본, 금석자료에 대한 별도의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56) 御製類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 범위를 정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앞서 살펴본 역대 서목의 분류 중에도 어정과 어제를 구분하지 않은 것도 있고, 왕이나 왕비의 저술이 아닌데도 어제류에 포함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역대서목의 御製 類門에 대한 상세한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에 御製로 분류된 것으로 기준을 삼고, 간혹 다른 류문에 분류된 것 중에 동일한 서명으로 어제류에 포함하여야 할 자료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列聖御製」라는 서명은 仁祖 때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전대 임금의 시문을 모아 간행한다는 의미다. 장서각본 중 17세기의 「列聖御製」는 인조년간에 간행된 義昌君 편찬의 「列聖御製」1책과 「列聖御製補遺」2책, 숙종 5년(1679)에 간행된 福昌君 편찬의 「列聖御製補遺」 1책, 숙종19년(1693) 경에 간행된 朗善君 편찬의 「列聖御製」 4책, 숙종 년간에 간행된 「列聖御製補遺」2책 등이다. 이 중 가장 이른 시기로 추정되는 義昌君 李珖 편찬의 「列聖御製」에는 태조, 태종, 세종, 문종, 세조, 성종, 인종, 선조의 시문을 싣고있다.

「仁廟御製批答附」는 1책으로 19장이며 仁宗이 세자때 지은 御製草 8 폭을 모아 편찬한 것이다. 권말에 "錦山郡開刊"이라는 간기와 함께 간행에 참여하였던 인물(全州判尹 權俠, 行都事 金文輔, 錦山郡守 李翼賓, 校正者, 幹事, 刻手 등)이 판각되어 있는데 權俠(1542-1618)의 부임시기를 고려하여 간행시기(1605년)를 추정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仁廟御製批答附」는 같은 내용으로 인조 12년(1634)에 간행된 것으로 권말에 "崇禎甲戌(1634)夏五月楊州玉泉庵開刊"의 간기와 校正者, 幹事, 刻手의 표시가 있다.

18세기의 간본은 영조 때에 이루어진 것이 많다. 장서각 소장 어제서 간본 82종 중 반 이상인 48종(58.5 %)이 영조년간에 간행되었다. 18세기의 간본은 모두 56종인데 경종 즉위년(1720)에 간행한 2종의 열성어제인 숙종의 열성어제 8권 4책본과 別編을 더하여 간행한 17권 8책본의 열성어제, 그리고 영조대의 48종, 정조대에 6종이 간행되었다.

영조대의 48종은 열성어제 5종을 제외한 43종이 앞서 살펴본 「奉謨堂奉藏書目」제2권의 영조대왕 어제서 刊本과 일치하는 것이 많다. 43종의 서책은 대부분 영조의 재위기간 중에 간행된 것이며 주로 10장-30장의 소규모 저작이 많고, 10장미만 이거나 절첩본 형태의 서적도 있다. 43종의 간본 중에 활자본은 무신자와 임진자를 주로 사용하였다.

정조 때의 어제 간본으로는 영조의 「列聖御製」와 「列聖御製別編」, 그리고 「內苑賞花戊申賡載軸」, 「元陵展省日聯韻軸」, 「正祖御製平昌國舅致祭文」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 「內苑賞花戊申賡載軸」은 1795년 10월에 黃海監司 였던 徐邁修(1731-1818)에게 반사된 것이고, 「正祖御製平昌國舅致祭文」은 平昌郡右千牛衛李公(宣祖의 私親 德興大院君의 장인 李世虎)와 그의 부인 정씨에게 내린 致祭文으로 첩장본이다.

19세기의 간본으로는 「列聖御製」로 순조대에 2종, 헌종대에 3종, 철종대에 3종, 고종대에 4종이 간행되었다. 「列聖御製」이외에는 순조 때에 4종이 었는데 2종은 莊獻世子의 睿製 인 「凌虛關漫稿」이고 2종은 정조의 문집인 「弘齋全書」이다.

4.2 版本

장서각 어제류 간본의 판본은 전체 82종 중에 목판본이 40종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며 나머지 42종은 모두 금속활자본으로 顯宗實錄字가 13종, 整理字가 11종, 戊申字와 壬辰字가 각각 9종씩이다.

또한 「列聖御製」 26종 중에는 목판본 11종, 금속활자인 현종실록자본 11종, 정리자본 4종이다. 「列聖御製」는 景宗의 어제인 영조 2년(1726)의 판본이 활자본과 목판본으로 모두 간행되었고, 이후로 간행된 장서각 소장 「列聖御製」는 모두 활자본이다. 현종실록자로 간행된 경종의 「列聖御製」(藏4-9) 1책은 경종의 詩 8수와 文 17편이 실려있다. 권말에 權愈, 李觀命 李宜顯의 발문이 있는데 목판본에서는 權愈, 李觀命의 발문이 행서체 그대로 썼지만 활자본에서는 본문과 같은 활자로 찍었다.

현종실록자는 「列聖御製」에 주로 많이 사용되었고 일반 어제류에는 무신자나 임진자가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다. 「列聖御製」를 제외한 어제류는 목판본이 29종으로 반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는 무신자, 임진자, 정리자, 현종실록자 등으로 간행되었다. 정리자본 중에는 필사본과 섞여서 간행된[57]

57) 「英祖御製日暮遼陽遠」1帖(18折)으로 整理字 부분에는 철종의 御製와 당시 여러 신료들의 賡和를 수록하였다.

판본도 있다.

대부분 당시에 쓰이고 일반 서책의 간행에도 쓰인 금속활자가 어제류 서적에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대로 御製의 간행방식에 따른 조선시대 왕실출판의 양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만 판본의 선택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4.3 형태

어제류 간본의 형태적 특징은 우선 인출에 사용된 종이의 질이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두께가 일반서적의 두배 이상으로 두껍고 무겁다. 인쇄상태도 매우 깨끗하여 글자의 새김 등이 정교하고, 정돈되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행되는 어제류의 판식이나 표지 등 형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의 흐름은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목판본에서 활자본으로 변화하거나 활자의 유형에 따라 판식이 변화하는 양상은 알 수 있다.

장서각에 남아 있는 「列聖御製」의 판본 중 영조 2년(1726)까지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지만 그 이후에 금속활자로 간행되면서 판식의 형태적인 변화를 보인다. 즉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목판본의 9行16字 체제에서 10行 20字 체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현종실록자로 간행하면서 목판본과는 다른 魚尾, 匡廓, 行字數 등의 판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식의 변화는 판본이나, 활자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하는 양상을 보인다.

5. 結 言

이상과 같이 장서각에 소장된 御製類 刊本을 대상으로 그 보존경위와 간행에 관련된 여러 사실, 현존본의 서지적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御製는 다른 주제 분야의 서적과는 달리 왕이 친히 저술했다는 점에서 구

별된다. 또한 왕의 정치사상은 물론 왕실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장서각 御製類 서적의 보존과정과 범위를 알아보는 의미에서 장서각의 서적 보존경위, 그 중에서도 특히 어제류 서적의 보존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고 왕실도서를 주로 포함하고 있는 書目중에 어제류서적이 저록된 상황을 살펴보았다.

御製類 서적의 관리는 정조의 奎章閣제도의 시행이후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장서각의 서적보존은 고려시대 왕실문고나 조선시대에 학술기구을 겸한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왕실의 편찬도서, 간행도서가 보존되어 왔고 왕실자료의 보관하였던 봉모당의 자료가 대부분 소장된 장서각의 서적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제류 서책의 범위는 현재까지도 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歷代 書目에 나타난 어제류를 정리하여 본 결과, 시대나 소장처별로 어제에 대한 분류개념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찬, 어정, 어제 등의 항목이 혼란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한 정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는다.

필사본의 형태로 대부분이 남아있는 어제류 중에서 간행된 자료를 우선 대상으로 삼아서 현존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간행시기는 17세기의 「列聖御製」 5종과 宣祖와 仁祖 때 간행된 「仁廟御製批答附」 2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18세기 이후의 간본이었다.

판본은 전체 82종 중에 목판본이 40종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며 나머지 42종은 모두 금속활자본으로 顯宗實錄字가 13종, 整理字가 11종, 戊申字와 壬辰字가 각각 9종씩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간행되는 어제류의 판식이나 표지 등 형태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의 흐름은 명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만 목판본에서 활자본으로 변화하거나 활자의 유형에 따라 판식이 변화하는 양상은 알 수 있다. 이는 왕실의 판본이 각 지방 감영이나 서울 등지에서 복각되고 재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후기 출판의 전영역에 영향을 끼친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열성어제가 활자로 편집되면서 보여주는 변화의 양상이 일반 어제류 간본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장서각 어제류 간본의 간행 의의를 확인하기위해 살펴본 왕실출판 관련자료는 어제서의 간행과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어제류 서적의 전체적 정리를 위한 기본적 과정으로 장서각의 소장자료를 우선대상으로 삼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규장각에도 소장된 어제류가 많이 있으므로 병행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어제에 대한 범위를 새롭게 확정지은 후에 현황을 조사하여야 하겠지만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장서각 소장목록에 분류된 방식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奎章閣志.
內閣日曆.
夢梧先生文集.
睿製繕寫謄錄.
承政院日記.
侍講院冊役所日記.

<論 文>

姜順愛, "奎章閣의 圖書編撰 刊印 및 流通에 관한 硏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9.

姜惠英. “朝鮮朝 正祖의 書籍蒐集 政策에 관한 硏究 : 奎章閣을 중심으로” 博士學位論文. 延世大學校大學院, 1990.
金東煥. “寶文閣의 變遷과 寶文閣冊目錄.”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大學院, 1984.
金文植. “正祖 御製集 弘齋全書의 書誌的 特徵.”「藏書閣」제3집(2000).
金允植. “李朝正祖朝의 官撰書目과 그 分類體制.”「國會圖書館報」第17卷 第4號(1980. 7. 8).
南權熙. “奎章閣 西庫의 書目과 藏書變遷 分析 : 現存書目을 중심으로.”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大學院, 1983.
南權熙. “西序書目籤錄 解題.”「奎章閣」12(1989).
南權熙. “承華樓書目考.”「社會科學硏究」第3卷(1987).
南權熙.「高麗時代 記錄文化 硏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南權熙. “韓國의 木板印刷 硏究.”「기록문화와 목판의 세계」安東: 韓國國學振興院, 2003.
文化財管理局 編.「藏書閣圖書韓國版總目錄」서울: 同局, 1972.
裵賢淑. “三國時代 文庫의 發達.”「書誌學硏究」제14집(1997. 12).
白 麟. “奎章閣略史.”「서울大學校圖書館報」第2卷(1964.12).
薛錫圭. “奎章閣과 正祖의 改革政治.” 碩士學位論文. 慶北大學校大學院, 1984.
宋日基. “奎章總目考 : 特히 徐命膺·徐浩修 父子의 活動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中央大學校大學院, 1982.
辛承云. “군서표기해제.”「국역 홍재전서」18.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2000.
辛承云. “弘齋全書와 群書標記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연구.”「書誌學硏究」제22집(2001.12).
申榮勳. “宮闕志에 관하여.”「文化財」第103號(1971) ; 第104號(1972).
愼鏞廈.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奎章閣」第5輯(1981).
遊芯歆. “奎章閣藏書와 乾隆·嘉慶時代 著述에 對한 硏究 : 考證學的인 著述을 中心으로.” 碩士學位論文.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附屬大學院, 1986.
沈喁俊. “登瀛閣考.”「書誌學硏究」創刊號(1986. 9).
玉泳燮. “摛文院의 藏書와 書目에 관한 硏究.”「書誌學硏究」제12집 (1992).

玉泳燮. “春坊藏書總目考.” 「韓國書誌學論集」 恒心尹炳泰博士停年紀念論文集, (서울: 民昌文化社, 1999).
玉泳燮. “侍講院의 書籍編纂과 刊行記錄 考察.” 「書誌學硏究」 제18 집(1999. 12)
尹炳泰. “藏書閣 資料의 特性.”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城南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
李離和. “奎章閣 小考.” 「奎章閣」第3輯(1979).
李在郁. “奎章閣槪說の緣由に就て.” 「文獻報國」第31號(1938. 12).
李載喆. “韓國書誌目錄學史의 一硏究 : 朝鮮朝의 四部分類法考.” 「省谷論叢」 7輯(1976).
李妊玟. “英祖代 御製書 편찬의 의의.” 碩士學位論文 서울대학교대학원. 2003.
李鍾默. “藏書閣 所藏 「列聖御製」와 國王文集의 編纂過程.” 「藏書閣」 創刊號 (1999).
李鍾默. “朝鮮時代 王室圖書의 收藏에 대하여.” 「書誌學報」 제 26호 (2002. 12).
李杏淑. “奎章閣藏書構成에 관한 연구.”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1982.
鄭玉子. 「정조의 수상록 「일득록」 연구」. 서울: 일지사, 2000.
千惠鳳. “藏書閣의 珍籍.” 「國學資料」 創刊號(1972).
千惠鳳. “藏書閣考 : 奉謨堂의 沿革機能 및 그 藏書를 中心으로.” 東喬閔泰植博士 古稀記念 「儒敎學論叢」(1972).
千惠鳳. “藏書閣의 歷史.” 「藏書閣의 歷史와 資料的 特性」. 城南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6.